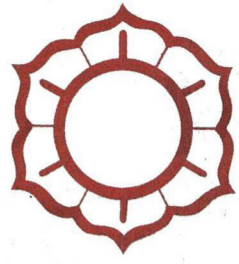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1년
5월 1일
화요일
제24호

公衆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
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증생을 이롭게 하
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宗祖法說集中)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익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 불교 총지종 종령 봉축법어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밑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오늘은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이면 우리는 어김 없이 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니다. 그러나 교도 보살 여러분! 그 동안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연등을 달아왔습니까? 그저 '무엇을 바라'는 마음과 서원으로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전체를 위한 것으로 회향되어야 하며, 또 보살행의 실천으로 연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작은 원에서 벗어나 대서원을 일으키는 정진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한 실천행과 함께 '내 마음 닦는 일'에 더욱 용맹정진토록 합시다. 이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행인 것입니다.

자,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날을 좀더 대아적(大我的)인 연등불사로 맞이 하도록 해봅시다. 등불을 밝힐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한 대승적 서원을 세워봅시다. 또한 대서원과 끊임 없는 대정진 불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이라도 몸소 베풀고 실천하여 봅시다.

내 마음을 닦으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해 보살도를 행하고,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며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요,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불교의 '복지쌍수'(福智雙修)요, '정혜쌍수'(定慧雙修)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실천을 권합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소원성취를 바라거든 남을 사랑하고 정을 베풀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연히 나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밑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선행을 하므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아 집니다.

이런 '부처님 오신날'은 진정한 보살로서 실천을 제일로 하는 행자로 거듭 나도록 합시다. '보살에게는 다섯 가지 착한 법이 있으니, 첫째는, 덕망과 신의를 항상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지 아니하며, 셋째는, 몸과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법을 항상 즐기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구제하는 것입니다.

중조법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을 숭상하면 작은 그릇이 되고, 큰 것을 숭상하면 큰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남'을 위하는, 더 큰 서원을 가지고 불공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를 바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총기 30년(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종령 록 정 합장

서원이 있어 불공에 들어갈 때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대화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불공이 궁극에는 타인을 위

교화활성화 대토론회로 다양한 방법제출

사원, 불단, 법의, 의례등 다양한 교화의 현대화 의견 제출...종단 정체성과의 관계 연구필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 까지 제 57회 춘계강공이 전국 사원스승님을 대상으로 본원인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교화활성화방안 대토론회" 대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은 시종 열기와 활발한 토의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지방 사원 및 각 교구회의에서 나온 교화의 어려움과 교화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다.

17일 개강불사와 특강에서 록정종령은 옛날의 창종정신을 되새겨 현재에 맞는 교화의 방안을 개발하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강조하시며 다시 한번 종조 원정대중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잃지 말고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시시불공, 처처불공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진언행자의 실천을 강조하셨다.

또한 스승의 상으로 항시 스승의 사명을 가슴에 새겨 자신을 추스르는 정신적 지주로 삼아 오상성신의 불퇴전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셨다. 스승은 우월성이나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와 사회에 숭선수범하는 실천행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특히 종단의 위계질서를 강조 하셨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과 불법을 공부하는 형제의 애를 가져 종단의 기강과 튼튼한 뼈대를 이루 종단발전의 초석을 이루자고 하셨다.

강공 이틀째 교화활성화방안 대토론회를 열어 각 교구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개인적 연구를 발표했다.

대구 경북 교구장 수인사 원봉주교는 현교와 밀교를 반대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밀교의 내용과 내용을 현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승단의 화합과 정돈된 종단의 모습을 기본으로 항시 학습과 공부를 생활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올바른 스승상의 확립을 통한 다양한 교화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 경인교구장 벽룡사 환수원 전수는 종단의 근본 뼈대인 교도의 조직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성학교 및 청소년 조직, 신정회의 활성

화문제에 대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자성학교의 활성화는 종단에서 시급히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광사 법성주교는 종단이 살아 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모범적이고 교화가 잘되고 있는 몇몇 사찰이나 종단의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조계종 능인선원의 사례를 연구하여 신도교육, 신도조직, 기도와 교육의 분리, 사원살림에 교도의 참여, 지도자의 리더쉽등 다양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였

으나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해암 총리원장은 종조님의 창종정신 내에서 다양한 교화방법과 현대화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시며 가사법의 현대화 제과와 제2기도량건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가사법의는 만다라의 교리에 입각하여 선을 보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전체승단의 의사 결정을 통한 수정보완하여 가사법의 불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불교도들의 서원담아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기원 대법회 봉행



4월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기원 대법회가 성대하게 봉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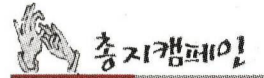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6.15 공동선언 채택 1주년을 즈음하여 통일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남북종교간 교류강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서울개회를 위해 민족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김대중대통령은 치사에서 "2545년 부처님오신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불교는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성숙에서 종교의 차이를 넘어 이제 국민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민족의 안위를 위한 호국불교는 IMF의 국민구복과 남북관계의 든

든 지춥대가 되었다"고 하며 이제 나라의 안정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불교계의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주변국과 세계각국이 인정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하며 머지않아 대화를 통한 협력과 화해가 있을 것이라 했다.

정대 조계총종무원장은 봉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근본에서 보면 같은 능력과 가치를 지닌 차별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부처님의 절대평등사상을 지속적인 통일정신의 기초로 인식하고 통일을 위한 실천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해암 총리원장 원송 총무부장 지성재무부장 법등 교정부장 및 서울 경인지역 스승님과 교도를 비롯한 여·야 정계인사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고대 그리이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일 것이다. 수많은 유정 무정물과의 만남과 헤어짐, 생성과 소멸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스스로가 홀로 있을 시간을 허락함에 있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상적인 법수(凡俗)에 관습하여 표류하느라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나누어 줄 것들은 나누고 하여 순수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그리고 감촉에 너무 민감하여 저 아래 바다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생활이라는 채찍에 밀려 마음의 여백은 조금도 없이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일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 가다보니 이제는 쫓기지 않으면 불안하기조차 할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물려 잘 돌아가는 돌바퀴같은 일상적인 생활보다 그 일상 옆에 있는 여백이 아닐까. 일, 물건 사람, 시간 할 것 없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세상 조금의 여유나 여백을 보면 참지 못하는 오늘의 일상에서 당장 우리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서원당으로 가자. 그리고 부처님전에 향 하나 피우고 앉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대도(大道)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서원당에 앉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혼자가 되어 보자. 나를 불등고 있는 모든 연을 버리고 오로지 나와 그리고 부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떠한지.

자석사 헌공불사 안내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 자석사 헌공불사를 전국 스승님과 교도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총기 30년 5월 23일 14시
- 장 소 : 불교 총지종 자석사 서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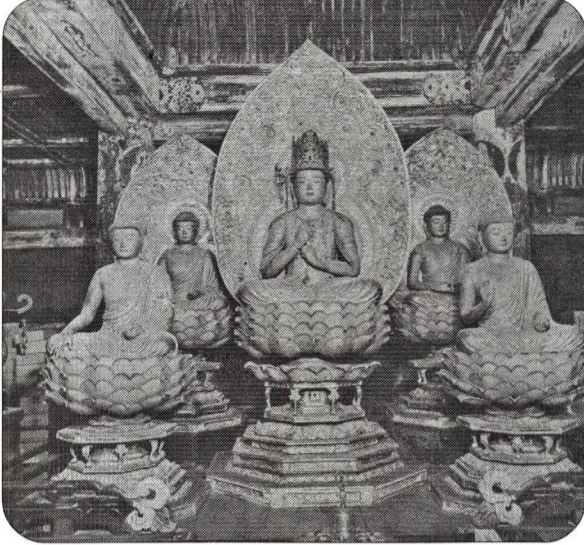
불교 총지종 총리원장 해 암

이기선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인계(印契)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진다. 부처님께서 땅에 흐트러진 슬 한 꽃머더기 가운데 한 송이를 밭잎이 손으로 집어 들어 대 중들에게 보이셨다. 수많은 손길에 한 곳에 쏠렸지만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였다. 다만 가슴조짐만이 빙글 웃었다.

염화시중의 미소. 이심전심(以心傳心)의 한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다. 또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를 엿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말이 없다면 의사소통에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외국을 여행하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발짓으로 겨우 간단한 의사소통을 나눌 때 느끼는 답답함.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 새삼스런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 언어장애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수화(手話)나 연극 가운데 무언극(無言劇)을 보면 무엇인가 소리를 넘어서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금강계 만다라의 五佛像. 중앙 대일여래가 지권인을 하고 있다.

진 연화나 나뭇 등 이른바 지물을 일러 인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대일경 비밀만다라품에서는 법계(法界)를 이 표지(標幟)를 써서 살한다고 설하고 있으며, 인도의 밀교승 붓다구히야는 그의 저술 비경의입문(秘經義入門)에서 "인이라 표지, 표호(表號), 표상(表相)과 동일한 뜻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이라 결정되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나 인장(印章)의 의미를 지닌 말에서 비롯되어 부처님이나 보살의 자내증(自內證), 본서(本誓) 또는 공덕을 상징하게 되었다. 손가락을 꼬부리거나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건(이를 전문용어로 '持物'이라 일컫음)을 잡기도 한다.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어떤 모습을 짓는 경우를 수인(手印)이라 하고, 손에 물건을 들거나 집어 인상(印相)을 나타낼 경우 이를 계인(契印)이라 한다. 다시 말해 여러 불·보살 등을 이 지닌 근본되는 서원을 중생구제를 위하여 마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 인계(印契)라 한다. 특히 이 인계는 밀교에서 신(身)·구(口)·의(意) 삼밀(三密)과 관련되어 발전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불·보살 또한 수없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불·보살마다 수많은 본서(本誓)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계

를 넘어서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인상(印相) 또는 인계(印契)의 기원이 이러한 데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상 또는 인계란 부처님이나 보살이 특정한 손가짐을 통해 종교적 상징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인(印)이란 산스크리트어 무드라(Mudra)를 뜻유감한 말이다. 무드라는 한자어로 무더라(毘陀羅) 등으로 소리유감하기도 한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 25에는 "일시 왕이 이 말(곧 무드라)을 가지고 종이 위에 쓰고 불합한 다음 치인(齒印)으로 이것을 찍었다"라는 말이 실려져 있으며,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 제1에도 인장 곧 무드라가 비구가 소지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된 유래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다. "한 때 도적이 들이 창고에서 사물을 훔쳐 갔다. 기험(記驗)이 없기 때문에 비구는 어느 때 물건을 잃어버리게 될 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는 그 인장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육중(六衆) 곧 금, 은, 유리, 수정, 옥, 돌을 가지고 인장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인장은 문서 등에 찍음으로서 그 문서가 진실이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인장을 뜻하는 무드라란 말이 비유적으로도 쓰여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게 이르렀다. 잡아함경 제10이나 대반열반경 제12, 대비바사론 등에 이르러 "제법무아, 제행무상,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불교의 진수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삼법인(三法印)'이란 용어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나이가 무드라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는 뜻으로 보다는 오히려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나타내는 표지(標幟)로 삼게 되었고, 서기 7세기 아지구다(阿地瞿多)가 번역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등에서는 손가락을 가지고 결인(結印)하여 나타내는 수인(手印) 외에 불보살이 손에 가

불보살등이 중생구제를 위하여 근본을 마음밖으로 드러 내는 것

또한 무량하다고 하겠다. 경전이나 의계(儀軌)에 실린 인계의 수는 수천 가지에 이른다. 밀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계도 십이합장(十二合掌) 6종권(六種拳) 가운데 하나를 바탕으로 맺게 되므로 12합장 6종권을 인모(印母)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밀교에서 볼 수 있는 인계는 수행법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밀교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존상(尊像)들의 인계를 모두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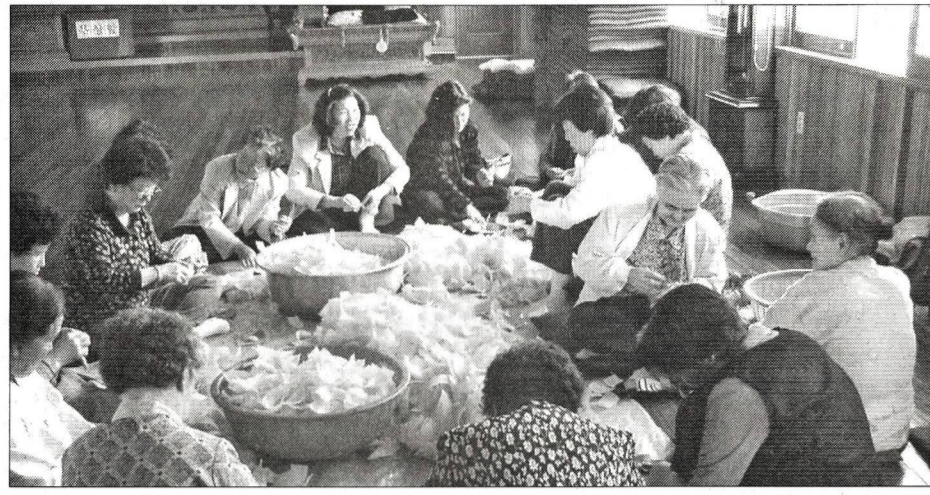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과 관련된 근본오인(根本五印)을 중심으로 중요한 인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짚을 찾아 불·보살에게 예경을 드릴 때 보다 뜻깊은 신앙심을 북돋게 하고자 한다.

석가여래의 근본오인은 선정인(禪定印)·함마인(降魔印)·전법륜인(轉法輪印)·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이란 다섯 가지 수인을 가리킨다. 이들 수인은 석가여래의 생애 가운데서 커다란 사적(事蹟)과 관련을 맺고 있다. 뒷날 이 근본오인은 밀교의 오여래(五如來)의 오인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

사원은 지금...

연일 하나 하나에 진언수행의 마음을 담고



지금 사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하얀 연일에 조상영식천도의 마음을 담고 노오란 연일에 복덕총명의 서원을 담고 붉은 연일에 일체인경애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연등을 만든다. 진언행자는 언제 어느 곳 수행실천을 놓지 않으며 마음한끝 흐트러짐 없이 부처님의 법피라 음마니반메춤 염송하니 그곳이 바로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이며 삼밀수행의 도량이다.

불교텔레비전 해암트리원장 출연

지난 4월 7일 해암 트리원장은 불교텔레비전 열린마당에 출연하여 앞으로 총지중의 발전과 방향, 계획과 신임트리원장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총지중의 지표인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알기 쉽게 영상을 통한 포교를 하였다.



정보 다이제스트

강남 과외비 평균 年 286만원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00년 전국 초·중·고 과외비 실태조사'는 여전히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고액과외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과외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286만 6000원, 일산7분당은 232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각각 49%와 45.1%가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133만5000원)의 99년 대비 상승률 6.3%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금액으로도 각각 2.14배, 1.74배 수준이다.

전국 과외비 7조1276억원 가운데 초등이 3조6083원으로 중학생(2조186억원), 고교생(1조4105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과외비율은 초등학교생이 70.7%로 가장 높고, 중학교 59.5%, 고교생 35.6%이었다.

"스트레스엔 용서하는 마음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 ABC방송이 3일 전했다.

미 미시간주 호프대 연구팀은 최근 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용서'와 '신체반응'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심리과학'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학생들에게 16초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순간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유감'을 떠올리게 한 뒤 신체변화를 측정했다.

그러자 정상일 때 분당 26회 수준이던 심박수가 분당 39회 수준까지 치솟았고, 혈압도 2.5mm/Hg 정도 올라갔다는 것. 하지

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다시 16초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적 장점을 떠올리며 용서하려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자 심박동수가 평균 0.5회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밥 3분의1만 줄어도 1kg 빠져

칼로리는 생활이다. 무조건 굶어서 살 뉘 수는 없는 일. 하루 필요한 칼로리 양보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이 간단한 더하기 빼기가 칼로리 다이어트의 기본.

보통 정도 활동량을 가진 성인 여자의 하루 칼로리 필요량은 2000칼로리. 칼로리 섭취량을 20% 줄이면서 배고픈 느낌을 줄려면 칼로리 양이 적고 부피가 큰 음식을 먹으면 된다.

예를 들어 오트미스나 카레라이스는 한 그릇에 600칼로리나 되지만, 콩나물 비빔밥은 410칼로리 밖에 안된다. 심심풀이로 집어 먹는 피자 작은 조각(100g)도 270칼로리나 되고, 봉어빵도 1개 100칼로리.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을 피하고 간식도 삼가는 게 기본이다.

재혼女-초혼男 결혼 급증

서울시는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여성들의 가족 노동 문화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00년 서울여성백서'를 22일 발간했다.

결혼 및 이혼: 백서에 따르면 80년 1.5% 수준이던 '재혼 여성+초혼 남성'의 결혼 비율이 99년 3.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재혼 남성+초혼 여성'은 4.8%에서 3.3%로 줄었다.

또 이혼율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90년 1만3432건에서 99년 2만591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97년 21.7%였던 이혼율이 98년과 99년에는 각각 29.6%와 30.4%로 크게 늘어 외환 위기로 인한 가정 경제의 파탄이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총 지중을 사랑하는 모 임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철쭉꽃 활짝핀 계절에 총지중을 사랑하는 모든 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활동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실천하는데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1

양재천 생태계 보호활동

청계산을 시작으로 하여 깨끗한 물이 양재천을 지나 한강에 유입되는 동안 하천 쓰레기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보호하고자 그 시발점의 하나인 양재천 일대 오물을 수거 처리하므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일 시 : 5월 6일 일요일, 13시30분 총지사에서 출발
장 소 : 양재 시민의 숲 인근
대 상 : 가족단위로 참석
참가비 : 1 가족당 ₩ 10,000

행사2

혈소판 제공 및 헌혈

백혈병,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혈액속에 있는 혈소판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혈액에서 혈소판을 분리한 후 5일 밖에 보관을 할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제시 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몸에서는 20일이면 혈소판이 다시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보시행을 이웃과 함께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 5월 12일 토요일 13시30분 총지사서 출발
시 간 : 채혈시간 약 1시간 소요
장 소 : 양재동 혈액원

총 사 모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 내 Http://shumisan.hihome.com/게시판



경주 국광사 주교
법성

지상설법

효도(孝道)는 백행의 근본

세존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뽕무더기를 보시더니 오체를 땅에 붙이시어 그 마른 뽕을 정중히 예배하셨다. 이를 본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바로 삼계의 큰스승이시며 사생(四生)의 아버지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의하고 공경하옵거늘 어찌하여 이몸을 뽕무더기에 친히 절하옵나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셨다. “네가 비록 나의 상족(上族) 제자(弟子)이며 출가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이는 짓은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뽕이 어찌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하시며,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됨은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니 어머니 몸 속에 의지하여 달이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허물어져 죽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만들어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효에 대한 말씀을 간곡하게 하시고 몸소 실행에 옮겨신 분이므로 부처님을 흠양하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와 덕성과 보살도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만약 효도를 행함에 흠이 있다면 다른 수행이나 덕성은 모두가 텅 빈 껍데기뿐입니다.

종조님께서서는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고 말씀 하시고,

“효경에도 ‘아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효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한 겁 동안 상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부처님이 삼계의 비할 데 없는 금색신(金色身)을 성취한 것도 다생 동안 효도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효도하는 공덕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세가지 고통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노인에게는 세가지의 큰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經濟)입니다. 돈이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한 평생

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늙은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자식 결혼시켜 남의 식구 들어오고 손

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팔세를 많이 받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 흉해 보이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정신이 없으니 노망이 들었다고 내 가족 마저도 가까이



종조님께서서는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 한 번 입어 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나이 들어 경제 능력이 없으니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습니다.

내 자식만 훌륭하게 키워 놓으면 노후는 걱정이 없겠다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

자들이 태어나니 용돈도 주어야지요,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일용잡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힘든 살림살이지만 서로 나누어 쓰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매달 적은 용돈이라도 드리는 것은 이제 자녀들의 몫입니다.

둘째는 병고(病苦)입니다. 몸에 병이 드는 고통을 말합니다.

나이 늘으면 자연히 찾아오는 병고는 어느 누구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너무 천하게 여긴 탓으로 나이가 들어 병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는 고독(孤獨)입니다. 외로운 고통을 말합니다.

산업화의 물결로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그 대신 핵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가 직장을 따라 도회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져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연히 홀로 남게 됩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여덟가지(팔고) 고통도 크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고통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고통

하기를 싫어합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한 노인에게도 문제는 많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요즈음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그저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명절 때나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은 밥상머리에 자식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생활패턴이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노인과 함께 기거하는 가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즈음 부모들도 자식과 따로 사는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과 따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고도 간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돈 만원을 쓸 때에 노인에게 천원이더라도 쓰면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불자들은 꼭 한 번 실천해 보십시오. 노인들은 자기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며 작은 것에도 감동을 잘 하여 고마워 하고, 반면에 서운하면 곧 잘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싹은 본인의 일이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드러내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살림을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가 된 부모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 이것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파브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님이 오늘 시장을 봐서 맛있는 것을 해 먹읍시다.” 하면 정말이지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와 동거를 하든 하지 않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일거리를 배려해 주시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부처라

옛날에 늙고 병든 노인을 버리는 기로 속(棄老窟)이라는 풍습이 있는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풍습에 따라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첩첩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에 업힌 어머니께서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가는 길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먼 길을 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막 떠나를 때에 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산을 올라 올 적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 왜 길 바위에 버렸습니까?”하고 여쭙자,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해서 그랬단다.”라고 하시더라.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한 이들은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극한 효심으로 봉양하였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자,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 공양함과 부모님께 효도한 공덕이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공양해도 가정에 살아 계신 부처이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부모를 위해 섬기는 정성이 부처님께 서원하는 마음자세로 행한다면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섬실하게 해놓고 서원당에 앉아 염송한들 무슨 공덕이 있었습니까. 심공할 땀 부처갈고 돌아서면 중생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지 말고 절에 가나 집에 오나 오직 그 마음 하나 서원하는 마음자세로 변함이 없어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주)대우에서 직장생활을 할 적에 모신 사장님 한 분은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항상 겸손하며 예의가 아주 바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님의 전화를 받을 때는 언제나 두 무릎을 꿇고 받으시고, 또 고향으로 아버님께 문안을 드리러 갈 적에는 언제나 차를 동구밖에 세워두고 걸어가서 문안을 드리고, 월급날이 되어 받은 월급봉투는 아버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가계에 쓴다는 말씀을 듣고 사장님의 몸에 밴 예의범절과 부모공경은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효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인류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마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요”

문 : 안녕하세요. 나 주위에서 인종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는 안목이 있다면 이쪽에서 보면 이에서 좋고, 저쪽에서 보면 하나,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정적 저래서 좋을 수 있겠지요. 마음을 이제부터 밝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도록 연습해 가면 나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답 : 먼저 일체유심조의 마음 도리를 깊이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밝은 마음 보다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되어지는 마음 보다는 안 되어지는 마음, 밝은 마음 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원인을 알고 나면 처방은 자연히 알게 되는 것.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좋은 것도 시각을 달리하면 미워질 수 있고, 저쪽에서 아름다운 것이 이쪽에선 못나 보일 수 있고, 전체를 두루 밝게 바라보면

육자진언 영송은
마음의 실상을
알수있는 최선의 방법

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치유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진언영송과 함께 좋은 마음 밝은 마음 갖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나간다면 분명 평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장원)

계룡 형제 콘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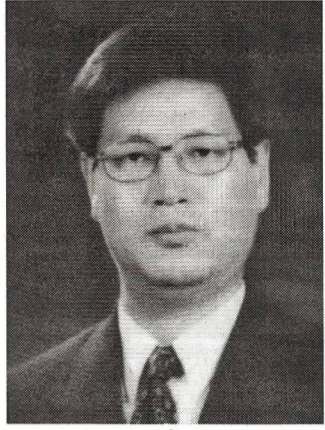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만들겠습니다.
(공장 직접 제작)

- 주택(농가용 주택 포함)
- 사무실
- 창고
- 원두막
- 경비실
- 차고
- 방갈로
- 매점
- 정류장
- 영안실
- 기타 특수 주문제작 판매

공장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
대표 : 강대길
전화 : 042)841-2251~2

총지논단

대승계와 소승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차석 (동국대 강사)

우리나라는 흔히 대승불교권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종단들이 소의경전으로 삼는 경전을 보아도 대승 불교국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은 대승 경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승불교를 숭상 하면서도 대승계에 대한 정의를 미흡하다는 점이다.

목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제1차 결집 당시의 사정일 뿐, 시간의 경과로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 환경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종류도 매우 많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 종파불교로 전환되는 가운데 율종은 모두 남산율종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종단의 종지 종풍에 맞는 계율 필요

계율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나 태고종도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면 전통이란 것도 그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이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진부성을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무아, 무상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군중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둘째 마음가짐이 다르다. 소승계를 받을 때는 한 생애의 수지를 다짐하지만 대승계는 영겁토록 수지를 다짐한다.

총지 등의 보감

자연 기흉(自然氣胸, spontaneous pneumothorax)

기흉이란 흉강에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흉강이란 폐를 둘러싸고 있는 장축막과 흉벽을 둘러싸고 있는 벽측 흉막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데, 쉽게 표현하면 폐와 가슴벽 사이의 공간으로 여기에는 윤활액의 역할을 하는 소량의 흉막액이 존재하지 공기는 없다.

가 흉강내로 들어가 기흉이 발생한다. 소 기포의 생기는 원인은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증상은 흉통과 호흡곤란이 대표적이며, 흉통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운동과는 관계없이 생기며 보통 24시간 내에 사라진다.

다. 자연 기흉의 치료는 먼저 흉강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 뒤, 흉강을 효과적으로 폐쇄시켜 재발을 막는 것이다.

자연기흉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

대부분 불편할 정도의 호흡곤란으로 나타난다. 기흉은 재발성(확률 약 50%)이 있는 것이 중요한 임상적 특징이며 대부분 2년 안에 재발한다.

신 마취하에 가슴을 열어서 소기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비디오 흉강경 수술이 발달되어 간단히 수술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빨라서 대부분 자연 기흉의 수술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역삼재가복지센터 소식

고령자 취업으로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어버이날 맞아 다채로운 경로행사열어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산하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최근 경제위 기 및 사회혼란으로 인한 자녀의 실업, 갑원, 갑병의 문제, 부동산 하락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노인이 스스로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센터에서 1곳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 고령자 취업은 총 234명이 구직을 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접수로 가능하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구직접수경우)와 사업자등록증사본(구직접수경우)이 필요하며 긍정적이며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558-8771)를 운영하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YSSWC Elder Care Center. It features a headline "노인을 위한 밝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and a URL "http://ysswc.hihome.com". The ad lists various services including day care, home care, and job training,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activities.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도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지문화계 소식

국광사 교도 참여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1” 열려

지난 3월30일부터 4월4일 엿새 동안 경주보문관관광단지내 엑스포행사장에서 펼쳐졌다. “세계속의 우리 맛, 멋 그리고 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술과 떡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였고 떡메치기, 누룩디디기, 술이름 맞추기, 가래떡 썰기, 화전만들기등 다양한 이벤트에 많

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다. 또한 투호놀이등 민속놀이와 전통혼례, 관례재현등 특별행사도 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매일 펼쳐져서 흥미를 더했다.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중국의 4개도시 우호단도 참가해 각각 자기나라의 전통주와 먹거리를 선보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가 주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경주시의 각 동부녀회 중심으로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경주 국광사 장정순(가칭)보살, 이순희(안심득)보살이 참가하여 자원봉사 및 행사도우미로 활동을 하였다. 장정순, 이순희 보살님은 각 동부녀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광사 교도로써 깊은 신심과 모범적인 사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주 국광사 제공)



대각사상연구원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사원경제 문제

지난 4월12일 대각사(주지 흥교스님) 대웅전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한보공 스님) 주최 대각사 후원으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하여 2001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범산스님(동국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보공스님의 “백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 기조강연, 이병희교수(교원대학교) “고려시대 사원의 재정운용”, 이봉춘교수(동국대학교) “조선불교의 경제현실과 그 대응활동” 김광식박사(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 사찰령” 이연오상무(삼성경제연구소) “불교와 경제의 만남: 현대 사원경제를 중심으로”주

제발표를 하였으며, 한기문교수(상주대학교), 송수환박사(울산시정), 혜봉스님(천일불교연구원), 이도업스님(동국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하였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이연오 상무는 불교와 경제의 만남이란 주제 속에서 20세기 한국불교는 수난과 혼돈의 역사였으며 선불교중흥, 현대화등 긍정적 성과속에서 교세의 성장이 정체되었고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는데 급급하여 한국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너무 빈약하다고 평가하며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제 금융이 발전하면서 ‘돈’의 흐름이 더욱 빨라져

좋은 삶은 불교도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 불교가 경제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 불교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존립이 위태로워 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불교는 근본적으로 탁월한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약하고 커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콘텐츠를 사회요구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가공하지 못했고 커뮤니티 측면에서 승단 운영이나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콘텐츠와 커뮤니티에 약점이 있을뿐 아니라 상업적 활동을 금기시 하고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며 수행을 열심히 하고(컨텐츠), 신심을 일으킨 신도들이 모여들고(커뮤니티), 회비 납부와 시주, 불교사업이 활발한 것이(커머스)바람직한 사원경제의 모습을 정의 하였다.

시대요구와 불교정신에 맞는 사업을 창안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교의 사명과 사업을 결합하는 방안과 사업을 벌여 불교의 사명을 실현하는 방법, 신심에 호소하여 돈을 모으고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시대 유산을 보존하는데 급급하여 하여 돈(용)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사업(상)을 벌여 불교의 사명과 돈은 모순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종립학교소식

2001학년도 동해중학교 학부모 총회 개최

지난 2001년 3월27일 동해중학교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축건물 특별실에서 열린 이번 학부모총회는 예년과 달리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하여 학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강경중 학교장은 “봄에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면 뿌리에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과 같이 동해중학교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어 모든 선생님들이 심기일전하여 제2의 동해 건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 이제 학교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은 긍정

산 소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며 학부모님들의 성원을 당부 하였다. 이어서 박영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생님들의 학교발전은 위한 노력 결과 학교가 최근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2, 3학년 학부모님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A large comic strip titled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비주얼밀교' (Visual Buddhism with the Great Teacher). The comic features several panels with characters discussing Buddhist concepts like 'Mandala' (만다라) and 'Kimbap' (김밥). It includes a central character with glasses and a mustache, and various scenes of people eating and talking. The text in the panels explains the meaning of 'Mandala' as a completed boundary and 'Kimbap' as a metaphor for the Dharma wheel.

며 학부모들도 작은 뜻과 성의를 모아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날 어머니 회장과 학교 운영위원 선출에서 박옥연(3·7조현민 학생회장)씨가 회장에 선출되었고 채현숙(2·7학년수), 류은숙(1·2학년수)씨가 운영위원회 보선에 각각 선출되었다.

5월의 문화인물 보조국사 지눌스님

송광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보조국사 지눌스님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제79회 보조국사종재'를 시작으로 5월 19일-31일까지 송광사 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지눌스님 '유물 유적특별전' '5월 13일 학술세미나'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선체

협 문화순례'를 실시한다. 19일부터 열리는 보조국사 유물 유적 특별전에는 목조삼존불감이 특별전시된다. 이 삼존불은 현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수수리 중에 있으며 전시를 통해 삼존불감의 역사적 미술적 개요와 보존수리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Saramdeul' (함께하는 사람들). The headline reads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and '순수함 이상 강한 힘은 없다'. The text describes the organization's mission to support and share love with disadvantaged youth. It lists the founding date as December 1998 and mentions that it is a social welfare organization.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phone number (02)5555-223 and a website (http://www.saram.or.kr).

함께하는 사람들 우편번호 135-082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55-223 팩시 : 3452-7486



불교 총지종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의 도량

한국 정통밀교 종단 불교총지종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 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크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Korea Buddhism Chong-ji-jong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 총지종 종령 록정

- 통 리 원 장 혜 암
- 중앙종회의장의장 의 강
- 중앙종의회부의장 법 공
- 사 감 원 장 송 하
- 총 무 부 장 원 송
- 재 무 부 장 지 성
- 교 정 부 장 법 등
- 사 회 부 장 대 원
-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 대구·경북교구장 원 봉
-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